

전통주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김영주* · 한영실¹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전공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전통주산업의 문제점과 대중화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주횟수는 남자는 51.3%가 일주일에 1-2회 술을 마시고, 여자는 33.2%가 한달에 한두 번 마시는 것으로 답하였다. 1회 음주량은 남자는 57.9%, 여자는 23%가 소주 한병에서 두병을 마신다고 하였다. 즐겨 마시는 술은 남자는 소주, 맥주, 전통주 순이었고, 여자는 맥주, 소주, 와인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술은 남자는 소주, 맥주, 전통주 순이었으며, 여자는 맥주, 와인, 소주 순으로 답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도수가 낮은 술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백세주, 산사춘, 청하, 매실주, 복분자주, 오가피주, 이동막걸리, 쌀막걸리, 안동소주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며, 계명주, 송로주, 향운주, 오메기술, 울주 등은 인지도가 낮았다. 전통주의 인지도가 전통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술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전통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전통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점으로는 판매처의 확대, 기술·경영지원과 산업육성정책 도입, 지역축제 및 향토음식과의 복합 상품개발지원과 인증제도에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특수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주류의 원료 생산지 및 효능표시제도 도입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전통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전통주를 개발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중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전통주의 올바른 교육과 상품화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이 강화 되어야한다,

* 담당자 : 심기현

* Tel : 02-710-9471

* 휴대전화 : 017-751-0918

* Fax :

* E-mail : santaro@sookmyung.ac.kr